

韓國 先進教育을 위한 學校圖書館 育成策

李 珪 範
釜山教育大學教授

I. 序

教育의 元來의 機能은 人間이 바라고 願하는 未來를 創造하는 것이므로 教育은 本質的으로 未來志向의인 活動이다. 모든 種類의 教育은 教育者나 被教育者의 未來像에 따라 左右한다. 그러므로 本主題인 “韓國 先進教育을 위한 學校圖書館 育成策”을 展開하는 觀點은 첫째 未來社會의 一般의 特性이 教育과 學校圖書館에 對하여 주는 示唆點을 살펴보고 둘째 學校圖書館 育成策에 關한 課題를 提起하고자 한다.

II. 未來 韓國의 教育과 學校圖書館

未來 社會는 (韓國社會도 例外없이) 다음과 같은 一般의 特性을 지닐 것임에는 틀림 없다¹⁾. 代表的인 것을 들면 첫째, 社會變動의 速度(rapidity)가 점점 더 加速化 된다는 것 둘째, 文化의 多樣性(diversity)이 더욱 增加할 것이라는 것 셋째, 自身과 環境의 條件을 統制할 수 있는 더욱 強한 能力(capability)을 가질 것 등이다. 이러한 趨勢가 教育과 學校圖書館에 對해서 주는 示唆로 살펴보자.

A. 社會變動의 加速化에 따른 適應性教育

社會變動의 速度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事實은 教育에 對해서 全面的인 挑戰을 提起한다. 變하는 사태에 適應하기 위하여 繼續的으로 行動樣式을 修正할 것이 要求되며 具體的인 知識과 技術은 迅捷 變換되므로 探究力이나 判斷力 같은 高次的 能力이 適應性을 높여주는 데 必要한 것이다. 知識量의 급격한 增加는 知識의 本質의 要素만을 選擇하여 組織的으로 가르쳐야 할 必要性을 더욱 높인다. 그러므로 教育에 있어서 學習하는 方法을 배우는 것과 모든 學習의 基礎가 되는 概念이나 原理를 學習하는 것과 다른 學習에 轉移 效果가 큰 內容을 學習하는 것과 같은 道具의 學習이 더 重要하게 된다.

또한 社會變動의 加速化와 社會機能의 分化는 한 個人이 一生동안 수행할 役割이나 그가 차지할 社會의 地位의 變化를 促進시킨다. 그러므로 個人은 平生동안

繼續해서 教育을 받아야 生産的인 社會成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現在와 같이 一定한 年齡期間에 단 形式教育을 받을 수 있는 制度의 變化를 가져와서 一生동안에 必要에 따라 수시로 教育을 받을 수 있는 “平生教育” 또는 “繼續教育”의 制度가 強化될 것이 要請된다.

前述한 社會變動의 加速化에 따른 適應性 教育을 充足시킬 수 있는 方法은 무엇인가? 이 質問에 對하여 다음의 두 引用文은 매우 적절한 回答을 提示하고 있다. “教室에서 行하는 授業의 限界內에서는 그 授業이 실형 아무리 뛰어난 것일지라도 全部를 다룰 수 없게 되었다. 學校圖書館을 通하여 모든 知識의 領域과 모든 創造的 表現의 形式에 있어서 制限된 教室授業의 限界를 無限히 擴大시킬 수 있으며, 靑少年의 여러가지 興味, 感想力 및 好奇心을 滿足시키고, 이를 助長시킬 수 있는 方法을 마련할 수 있다.”²⁾

“.....어떤 學問分野에 關한 知識에 通達하는 次善의 길은 그 知識을 어디서 얻어낼 것인가를 알아두는 것이라고 하여도 결코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圖書館을 自信있게 效果의으로 利用할 줄 아는 方法을 배운 사람은 限界없는 知識의 世界에 이르는 열쇠를 손에 쥌 셈이다.”³⁾

이와 같은 證言들이 示唆하고 있는 바는 우리의 教育方法은 學習者에게 單純히 事實을 蓄積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學習者가 自己의 知識을 繼續的으로 最新의 것으로 維持시킬 수 있는 方法 즉 知識 그 自體(know-what)보다 知識의 所在(know-where)를 가르쳐 주는 圖書館의 教授方法(Library method of instruction)

1) 鄭範諤, 李相周編, 未來; 人口, 環境·社會·教育의 諸問題, 서울, 培英社, 1975. p. 241.

2)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ed.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Program.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0. p.4.

3) Harry L. Nicholson, and Sirion P. John. “Foreword” in Integrating Library Instruction with Classroom Teaching at Plainview Junior High School, by Elsa Berner.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58. p.iii.

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⁴⁾. 그리고 이러한 方法을 배운 사람은 一生동안 自己學習을 繼續할 수 있는 “生涯教育”을 可能하게 하는 길이다.

B. 文化要素의 多樣性에 따른 價值教育

社會構造의 分化, 個人役割의 特殊化, 交通과 通信의 發達로 인한 文化交流의 增大 社會體制의 民主化 또는 開放化 等 加速되는 社會變動 等の 趨勢는 한 社會에서의 異質的인 文化要素를 增加시키고 文化의 複合性을 높이는 데 作用할 것이다. 文化要素의 多樣化가 야기되는 問題는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價值觀의 葛藤을 지적하고 統一된 行動規範의 定立을 역설하는 講演들, 外來文化을 경계하고 民族文化의 正統性을 強調하는 論文들, 商品의 현명한 選擇을 위한 消費者教育을 主張하는 女性團體들, 職業選擇을 도와주는 職業相談者들, 이 모두가 文化의 多樣化 過程에서 일어나는 問題와 관련있는 것이다.

多樣性이 지나쳐서 “過多한 選擇(overchoice)”⁵⁾을 要求하게 되면 個人은 심각한 價值觀의 混亂이나 役割의 葛藤에 빠지기 쉽다. 個人에게 실재없이 밀어닥치는 雜多한 여러 事物과 價值를 判別하고, 選擇하는 能力을 길러주는 教育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教育은 特定한 價值의 受容보다는 價值의 判斷力을 길러야 하고, 特定한 價值內容의 注入보다는 價值判斷基準의 形成에 強調를 두어야 할 것이다.

以上과 같은 價值教育問題는 무엇보다 學校圖書館에서 잘 選擇되고 意圖의으로 指導하는 敎養讀書의 方法이 效果의이다. 讀書에 依한 人格形成은 많은 學者들로부터 研究되고 檢證되었다. 우리들이 經驗해 보아도 이름 있는 古典을 읽는 가운데서 價值의 判斷力과 價值判斷의 基準을 定하는데 도움을 크게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教育의 現實은 入試教育을 위한 知識習得에 급급한 나머지 價值教育과 人性教育은 外面당하고 있으며, 80年代의 經濟發展을 向한 技術職教育의 過程에서도 敎養(價值觀) 없는 技能人間으로 되어가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情狀을 解決해야 할 韓國教育의 人間化問題는 學校圖書館의 社會性 指導(社會性에 關한 間接的 讀書指導와 直接的 現場指導)에서 充足될 것으로 믿는다.

C. 環境의 統制能力을 기르기 위한 餘暇教育

現在 進行中에 있는 電子革命은 人間의 生活과 教育에 큰 變革을 초래할 것이다. 科學技術의 發達과 工業化는 人間에게 物質的 惠澤뿐만 아니라 精神的 餘力도 준다. 무엇보다 重要한 精神的 餘力은 增大되는 餘暇時間이 차차 增加함에 따라 중매의 社會價值와 人間의 生活樣式을 全般的으로 再檢討하고 再調整할 必要性이 높아질 것이다. 生存을 위해서 열심히 勞動만 해오다가 大衆餘暇時代에 살아가기 위하여 準備되어야 한다. 餘暇의 時間을 價值롭고 創造的으로 消費할 수 있는 活動 중에 가장 뜻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은 아마도 教

育이 될 것이다. 더 많이 갖게 될 餘暇時間을 自身の 自我實現을 위해서 쓰게될 것은 틀림없다.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餘暇의 時間(環境條件)을 價值롭고 創造的으로 消費(統制能力)할 수 있는 教育活動은 圖書館을 利用하는 것 만큼 效果的인 方法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餘暇의 時間에 多樣한 圖書館資料를 活用시킴으로써 學生들의 興味(趣味, 娛樂)를 健全한 方向으로 이끌어주며 그들에게 成長의 歡喜를 體得하게 하여 준다. 低俗한 興味와 官能的인 娛樂을 追求할 겨를을 주지 않는 것은 教育的으로 큰 意味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教育的 效果는 또한 社會的 非行靑少年 豫防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다.

前述한 바를 要約하면 社會變動의 加速化가 教育에 挑戰하는 ‘知識의 爆發’과 ‘變化’ 및 ‘心理의 不安’과 ‘價值觀의 混亂’ 등의 症勢를 알빈 토폴러(Alvin Toffler)는 “未來 쇼크(future shock)”라고 불렀다. 이러한 쇼크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韓國教育은 先進된 教育過程과 現代화된 學校圖書館의 潛在的 教育課程으로 充分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學校圖書館의 潛在的 教育課程이란 ‘學生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教育課程—學習內容을 學習함과 同時에 눈에 보이지 않은 人生의 學習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正常的인 授業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은 學習(個人的 能力別 學習, 自律的 學習 習慣과 學習方法 公民的 道德의 伸長, 健全한 興味 等)이 學校圖書館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學校圖書館의 先驅者인 파야고(L.F. Fago)는 “학교도서관은 學校教育에 있어서 心臟이며”……학교의 여러 施設 중에 圖書館처럼 社會性을 띤 곳은 없다.”고 했다.

III. 學校圖書館의 根本的 育成策

學校圖書館의 育成算에 關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論議되어 왔으므로 여기서는 教育體制로서의 學校圖書館 育成策에 關하여 論議하고자 한다.

根本的인 學校圖書館 育成策은 教育體制의 能率化에 있다고 본다. 教育體制라는 概念⁶⁾은 첫째로 教育理念과 教育內容을 잇는 教育目標의 體系, 둘째로 學習經驗 計劃과 授業實踐을 連結하는 이른바 學習體系 셋째로 教授·學習體系의 經營을 支援하는 學校運營體系,

4) 金斗弘, “教育의 方向과 學校圖書館의 可能性”, 도서관, 27권 6호, 1972. 6. p.3.
5) Alvin Toffler, “The Psychology of Future,” A. Toffler (Ed.) Learning for Tomorrow; The Role of the Future in Education, New York; Random House 1974, pp.263—283.
6) 金豪權, “韓國教育의 現代化”, 韓國教育, 第10輯, 1973. 1. p.8.

네째로 이 모든 것을 다시 뒷받침하는 教育支援體系의 네가지로 나눌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모든 體系에 學校圖書館이 끼어들어야 비로서 教育과 圖書館이 함께 發展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敷衍해서 말하면, 첫째 教育目標의 體系에 學校圖書館의 教育內容의 各級學校의 水準에 맞도록 配定되어야 하고, 둘째 教授·學習體系에 圖書館의 學習方法이 適用되어야 하며, 셋째 教授·學習體系를 支援하는 學校運營體系(行財政, 人事組織)等に 學校圖書運營의 比重이 커야 하고 네째로 이 모든 것을 다시 뒷받침하는 教育支援體系(正常的 教育運營을 돕는 教育政策의 支援, 學校教育을 促進하는 社會心理의 風土條件)에 學校圖書館支援策이 樹立되어야 學校圖書館은 根本的으로 育成된다고 할 수 있겠다.

N. 結論 및 提言

現代화된 學校圖書의 育成 없이는 韓國의 先進 教育은 期待하기 어렵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오늘날 처럼 加速化되는 社會變動 속에서도 우리 教育은 얼마의 知識을 暗記하여, 學力이라고 말하고, 入試地獄에서 아이들은 學問을 사랑하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學問을 憎惡하는 것을 배워 나온다. (Erasmus의 말) 그리고 80年代의 經濟發展을 向한 人力開發은 人格(價値觀) 없는 技能人을 輩出해내는 것 같다. 이

와 같은 教育의 問題를 打開하기 위해서도, 아니 “未來의 衝擊”이 教育에 挑戰하는 對應策으로서 어느 때보다 學校圖書館의 育成策을 서둘러야 하겠다.

끝으로 本論에서 提起된 論理를 基礎로 하여 오늘의 學校圖書館 育成策을 위해 다음과 같은 提言을 하고자 한다.

1. 教育內容을 잇는 各級學校 教育目標에 學校圖書 利用教育에 關한 內容이 程度에 맞게 設定되어야 하겠다.
2. 各級學校 教授—學習에는 圖書館 資料를 直結시켜 經驗하게 하고, 이러한 學習成果는 반드시 評價해야 하며, 特別히 大學入試 豫備考査(學習評價)에는 圖書館을 通하여 學習한 經驗없이는 答할 수 없는 상당한 出題가 되어야 하겠다.
3. 各級學校 運營體系에는 教授·學習을 專門的으로 支援하는 學校圖書館의 人事組織, 行財政 運營이 全國的으로 統一化될 수 있도록 文敎部令이 制定되어야 하겠다. (例; 學校圖書館 運營令) 特別히 學校圖書 奉仕의 重要性和 業務의 專門性에 비추어 司書教師의 地位를 規定한 現行 教育公務員法의 改正과 現實的으로 司書教師를 主任教師로 昇格시켜야 하겠다.
4. 學校教育을 돕는 政策的 支援으로서 學校圖書館의 專門性을 指導할 수 있는 獎學體系가 서야 하겠다. (例; 文敎部는 專門職 學校圖書館 擔當官, 市道敎委會는 獎學士를 配置하는 일)

各 圖書館 必携의 參考文獻

R. R. BOWKER COMPANY

BOOKS IN PRINT: Author Index: Title Index 1974, 4 vols
 SUBJECT GUIDE to Books in Print 1974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 15/e
 IRREGULAR SERIALS AND ANNUALS, 3/e

MARQUIS WHO'S WHO, INC.

Who's Who in America, 38/e
 Who's Who in the World, 1/e

BURT FRANKLIN

Courant, M.,	Bibliographie Coreenne, 3 vols	\$ 90.00
Howorth, H. H.,	History of the Mongols from the 9th to the 19th Century 4 vols.	\$ 200.00
Kerner, R. J.,	Northeastern Asia, a selected bibliography; contributions to the bibliography of the relations of China, Russia, and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Manchuria, and eastern Siberia, in Oriental and European languages, 2 vols	\$ 57.50

■ 弊社에서는 上記 出版物의 韓國總販으로 注文을 拜受하고 있아오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株式會社 汎文社
 서울鍾路區鍾路1街40 電話(72)5131~33